

제 7 강 병든 자를 위한 구원 (왕하 5:1~27)

I.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(5:1): 그 주인 앞에서 크고 귀한 자. 큰 용사이거나 나병환자

II. 엘리사에게 나아가 고침을 받는 나아만(5:2~17)

1. 발단: 한 여종의 단순한 믿음(2,3)

- 1) 아람 사람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(2)
- 2) “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”(3): 그가 그 나병을 고쳤을 것

2. 노력 1: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나아만(4~7)

- 1) 나아만의 엄청난 선물(5)
- 2)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특별 서한(6):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
- 3) 이스라엘 왕의 반응(7): 자기 옷을 찢음. “내가 하나님이나?”

3. 노력 2: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는 나아만(8~12)

- 1) 엘리사(8):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(8)
- 2) 그의 사자 통해 말씀(10):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.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할 것
- 3) 나아만의 분노(11,12): “내 생각에는” (강대국의 군대장관, 거창한 치유의식 제공 없음)

4. 고침을 받은 나아만(13,14)

- 1) 큰 믿음을 가진 종들의 충고(13): 그렇게 쉬운 것을 왜 하지 않는가?
- 2) 고침 받는 나아만(14): “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” “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.

5. 예수님의 도전(눅 4:27):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환자들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. 우리는 어떠한가?

III. 병 나은 사건 이후(5:18~27)

1.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(15~19):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.

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,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음

2. 나아만의 예물을 속여 취하는 게하시(20~27)

- 1) 자신의 지위 남용 & 나아만의 감사와 호의 악용(20~24): 거짓말로 예물을 취해 숨김
- 2) 엘리사의 책망: “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?”(25,26)
- 3)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미치리라(27)